독자투고란, 사상의 자유시장

이 글의 목적은 사상의 자유시장 역할을 하는 독자투고란의 성격을 통사적으로 고찰하는데 있다. 90년 이후 양적 성장에 비해 내용이나 형식 등 질적인 개선의 여지가 많음을 지적한다 〈편집자〉

윤 숙 희
〈언론학 석사〉

1785년 영국의 '더 타임즈'에 독자투고란이 만들어진 이래 독자투고란은 신문을 접하는 독자들이 직접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였다. 특히 요즘들어 능동적인 수용자돈이 많은 관심의 대상이 있는 상황에서는 독자투고란이 지니는 의미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우리나라도 근대신문의 효시인 '독립신문' 창간호부터 독자투고를 권장하여 창간후 11일만인 1896년 4월 18일 자에 처음으로 독자투고를 게재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내 대부분의 일간지들은 독자투고란에 일정한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각 신문사가 적게는 매주 3~4회, 많게는 매일 운영하는 독자투고란이 형식적이든 아니면 실질적으로 독자의 의견을 수용하고 있던간에 일반적으로 독자들의 사상과 견해를 자유롭게 유통시키는 사상의 자유시장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은 확실해 보인다.

세다가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인 언론의 자유, 즉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말하고 공개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물리적인 토대를 마련해 준다는 의미에서 그 역할이 주목되는 것이다.

독자투고란에 대한 관심은 언론의 독점화와 이로인해 대다수의 국민이 대체의 이용으로부터 배제되고, 획일적인 정보만이 전달되고 있는 현실에서 출발해야 한다. 즉 대중매체에 의한 일방적인 여론형성에 제동을 걸고 한편으로는 일반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이라는 인식이 전제될 때 독자투고란의 연구는 자신의 존재의미를 인정받는 것이다.

87년부터 양적증가

따라서 필자는 독자투고란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독자투고란의 성격을 객관적이고 통사적으로 파악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제기된 문제는 한국신문 독자투고란의 시기별 양적 변화추이와 한국신문 독자투고란의 시기별 내용의 변화추이, 그리고 한국신문 독자투고란의 시기별 투고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구체화했다.

이와같은 연구문제를 조사한 결과 필자는 다음과 같은 4가지의 결론에 도달했는데 먼저 우리나라 신문의 독자투고란은 양적 측면에 있어 90년대에 이르러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93년도를 전후로 하여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이는 90년대 이후 지면의 대폭적인 확장, 신문산업의 무한경쟁 돌입과 함께 각 신문들이 독자들의 소리를 지면에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태도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동시에 독자들의 수용태도도 이전의 수동적인 것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변화한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4개의 분석대상 신문(조선, 동아, 한국, 서울신문)중에 예외적으로 서울신문의 경우 지난 30여년 동안 절대적인 양은 증가했지만 다른 신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었다.

다음으로 시대적인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독자투고의 내용도 함께 변화하는 양상을 볼 수 있었다. 특히 1987년을 기점으로 독자투고의 내용은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투고의 주체에 있어서는 정치에 관련된 투고가 87년을 기점으로 엄청난 증가를 보였으며, 행정, 사회관련 투고는 그 비율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투고의 형식면에서도 87년 이전까지는 민원이나 고발성 투고가 과반수에 육박하면서 독자투고란이 민원창구나 신문고로서의 역할에 주로 편중 되었으나, 87년 이후로 의견과 제언 형식의 투고가 점차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독자투고란이 단지 민원창구로서의 역할에 그치기보다 독자들의 매체접근권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개토론의 광장인 '사상의 자유시장'으로서의 역할에 그 비중이 옮겨지는 단서로 볼 수 있어 긍정적인 현상으로 판단된다.

셋째로 우리나라 신문의 독자투고란에는 자사 신문기사에 관한 투고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그 비중이 극히 미약하며, 게재 하더라도 투고소스 유형에 있어 상당수가 자사의 견해나 입장이 배제된 일반 스트레이트 기사나 독자투고에 한정되어 있어 신문에 대한 수용자의 피드백을 받아들이는데 있어서는 아직도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음을 알게 해주었다.

이는 독자투고란이 신문의 감시자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지표로 보아야 한다. 혼히 언론을 사회의 거울로 표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신문들이 독자란에서 자신의 편집방향에 반대되는 의견 내용에서 체계적으로 소외되고 제외되기 쉬운 소수집단 혹은 이익집단의 의견이나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줄게는 소외계층을 줄이고 넓게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다양한 견해를 알림으로써 이익집단간, 또는 사회전반의 상호이해, 합의, 통합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같은 결과는 소외된 계층의 의견을 담아내고, 독자들의 차별없는 매체접근을 보장하는 독자투고란 본래 기능에 대치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다.

질적 성장 병행돼야

결국 신문의 독자투고란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양적으로 발전하였지만 내용면에서는 제약점을 다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독자들의 의견이 시대적인 상황 특히 정치적 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현상은 아직까지도 일반국민이 권리로서 행사해야 할 의사소통의 기회와 폭이 협소한 상태로 남겨져 있음을 알게 해준다.

또한 각 신문사들이 자사 편집방향이나 기사내용에 대해 반대의견을 얘기하는 독자들의 의견을 잘 게재하지 않으며, 투고자들의 지역분포가 도시로 집중되는 경향이 보인다는 연구 결과들은 아직까지는 질적인 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언론수용자들의 다양하고 능동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는 시대적인 상황에 비추어 불패거의 유일하다고 할만한 신문의 독자란은 언론의 자유는 물론 책임있는 언론상을 구현하기 위해 형식과 내용면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수용자 집단의 의견 표명기회 제공
신문 감시자로서의 공중통제 수행해야

세시봉

전채연 학술부장

촌지없는 학교 '숨쉬는 교육을'

그리이스 신화에 피그말리온이라는 조각가에 대한 것이 있다. 자신의 조각품에 대한 진실한 애정이 마침내 조각품을 숨쉬게 했다는 얘기 말이다. 불가능한 일에 대한 이런 무한한 정성을 우리는 혼히 가르치는 사랑의 심성에 비유하곤 한다. 멀리 헬렌켈러에 대한 설리반의 기적을 보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런 기적을 결코 불가능하다고 치부하지 않는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사회의 모습이 이런 바램과 얼마나 일치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잠시 유보해야 할 것 같다.

오늘의 교육자는 피그말리온적 사랑보다는 피그말리온적(?) 촌지에 더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닌지. 교육자의 학생에 대한 사랑은 학부모들의 끊임없는 정성과 비례하는 것인 듯하다. 촌지의 횟수와 양에 따라 학생에 대한 관심이 바뀐다고 믿는 학부모들이 많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현상황에서 '촌지없는 학교'를 선언한 서울 중동중고등학교는 신선한 충격이다. 이 학교가 공식적으로 표명한 3무3행은 촌지, 불법과외, 교내폭력을 없애는 3무와 교사들의 수업 1분전 교실입실, 1시간 수업당 2시간 연구, 1일 세학생 면담을 행하는 3행이라 한다. 21세기 주인공을 길러내는 중고교 교육에 부는 개혁의 바람은 참 시원하다. 결코 근절되지 않으리라 생각되던 관행 아닌 관행이 되어버린 촌지를 학교 스스로 안 받기로 했다는 것은 의의를 둘만하다. 이는 학교사회의 구조적 병폐로 지적되어 왔으면서도 근절되지 않았던 일인데 말이다. 사실 사교육비가 엄청난 우리나라 학부모들에게 촌지는 또하나의 부담이 되어왔다. 과외다 학원이다 해서 찌들어 있는 부모들에게 아이들이 또한번 애물단지가 되는 것은 학기초나 무슨 무슨 행사때이다. 이런 관행은 석연치 않으면서도 이미 너무 당연시되어 와서 어쩔 수 없는 것이겠거니 체념해온 것이 사실이다. 교육을 받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들은 촌지를 준 경험유무에 관계없이 늘 이에 신경이 쓰인다고 한결같이 입을 모은다. 대다수의 학부모들이 촌지를 근절해야 할 폐습으로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남들이 다 주는데 나만 안 줄 수 없다"고 여긴다. 학부모가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교육자를 찾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이 '촌지'때문에 부담을 갖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래서 더욱 '촌지없는 학교'선언은 주목된다. 인간이 무리를 이루어 살아가며 인간답기를 바라는 한 인간에게 있어 교육은 필연적이다. 때문에 교육은 얕은 도량의 튀는 물갈아서는 안될 것이다. 끊임없이 깊어지는 자성의 노력, 이것이 우리 교육이 기울여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는 교육자 스스로의 노력과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학부모의 의식변화가 동시에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촌지없는 학교'를 선언한 교육자들의 희망은 필어도 좋을만하다. 그들의 희망에는 언 가슴을 녹여 숨을 불어넣는 피그말리온적 교육에 대한 깊은 신념이 보이니 말이다.

의학에세이 ④ 임상일지

무지 외반증

유 명 철
〈의료원 정형외과 과장〉

무지 외반증이란 무지(엄지발가락)가 관절부에서 내측으로 돌출된 것으로, 의학적 용어로 표현하면, 엄지발가락뼈(제1중족골)가 발가락 관절에서 내측으로 과잉 돌출되고, 내측으로 기울어져 둘째 발가락뼈와 떨어지면서 다른 족지들에서도 변형이 동반되는 복합적인 질환이다. 이는 혼히 가족력이 있고, 양측성이며 중년이나 노년 여성에게서 많이 볼 수 있다.

원인으로는 우선 신발로 인한 변형을 들 수 있다. 성인 여자의 신발과 같이 앞이 뾰족하고 볼이 좁아져 있는 신발(일명 뾰족구두)을 오래 착용한 경우에 발의 모양이 변하면서 생길 수 있다. 그외에 선천성 원인으로 생길 수 있으며, 발가락의 길이가 서로 차이가 많으면 생길 수 있다. '긴 엄지발가락, 제1중족골 내반, 납작발, 내회전된 발 등에서도 혼히 동반된다.'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통풍 같은 관절염에서도 혼히 발생된다.

변형이 진행되면 무지의 외반 이외에 모든 발가락은 중족골에 대해 외측으로 밀려 나가며 제2발가락에서는 망치 발가락의 변형을 초래하고, 발가락뼈 골두의 내측에는 지속적인 접촉으로 인하여, 피부는 두터워지고 피부와 골 사이에 점액낭염이 발생하는데, 이를 건막류(Bunion)라 한다. 더 오래 진행되면 제1발가락 관절에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하게 된다.

증상으로는 외형적인 변형은 있으나 통증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동통은 나이에 따라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동통의 원인으로는 점액낭염(bursitis), 제1발가락 관절의 퇴행성 관절염, 종자골의 관절염, 무지에 분포하는 신경의 압박, 발바닥의 아치가 넓어져 발생한 발바닥의 피부경결 등이 있다.

치료는 경증인 경우에는 볼이 넓고 편한 신발을 신거나, 중족골 패드를 대어 동통을 완화시킬 수 있다. 점액낭이 급성염증을 일으켰을 경우는 안정과 항생제 투여가 효과적이며 증상이 없다면 미용적 목적으로는 수술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그러나 엄지발가락 안쪽으로 돌출이 심하고 구두모양이 쉽게 허물어지며, 구두한쪽 면만 닳거나 구두내측에서 압박을 받는 경우는 통증이 경미하더라도 수술 대상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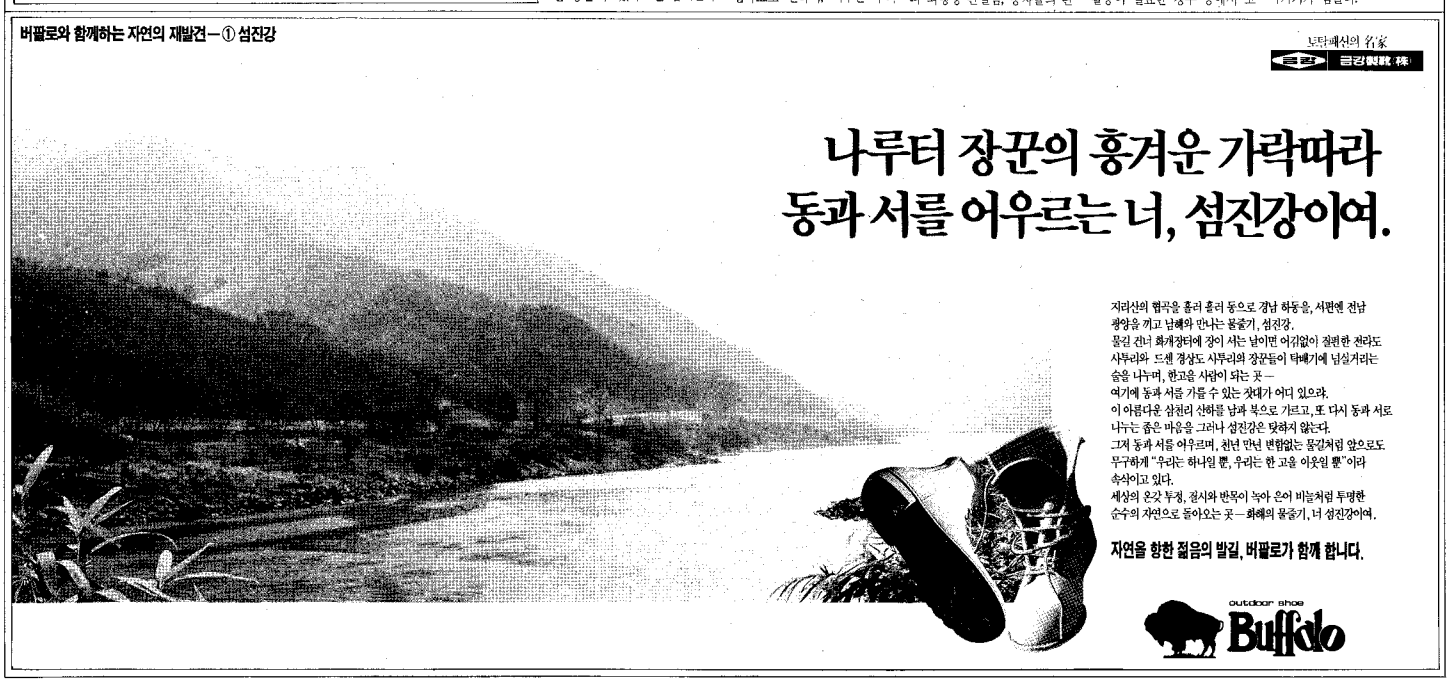
수술적 치료의 목적은 동통을 제거시키고, 변형을 고치며, 진행을 막는데 있으며, 동통과 변형이 심해지거나 일반 신발을 신기가 어려운 경우, 사회적 활동이 필요한 경우 등에서 고려해야 한다.

수술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환자의 나이, 외반증의 정도 및 증족지간 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정도에 따라 약간씩 다르다.

수술방법으로는 뼈를 교정하는 수술과 단지 돌출된 연부조직만 제거하는 방법으로 크게 대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연부조직 제거만 하는 수술은 약 2~3주의 치료 기간이 필요하며 뼈를 고정할 시는 6~7주간의 치료기간이 필요하다. 40세 이하의 환자로서, 퇴행성 변화가 없거나 경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관절을 만들어 주어야 하며 이런 목적으로 발가락에서 돌출된 연부 조직제거 수술이 일반적으로 이용되나 변형이 심하여 발가락이 많이 틀어져 있을 시는 절골술로 교정하여야 한다. 60세 이상의 환자에서 관절의 변화가 경미하면, 변형을 어느 정도 고치면서, 동통을 없애는 비교적 간단한 수술을 선택하여야 한다. 어느 연령에서나 퇴행성 변화가 심하면 관절 성형술이나 관절 고정술에 의하지 않고는 동통을 감소시키기가 힘들다.

편한신발로 통증완화, 심할경우 수술

버팔로와 함께하는 자연의 재발견—① 섬진강



노타해선의 名家
금강 금강제화 株